

雀斑의 原因, 症狀 및 治方에 關한 文獻的 考察

朴惠駿 · 高祐新*

ABSTRACT

A Literatural Studies on the Cause, Symptom and Treatment of the Freckles

Park Hae-jun · Go Yoo-sin

Freckle is defined that it is one sort of dermatoses which appears in face, neck and the back of the hand et. and is due to excess pigmentation. Likewise, Vitiligo and Cloasma belongs to dyspigmentation.

Although dermatitis it self is a slight illness, the extent of studying dermatitis is quite extensive because it is connected directly with the patient's appearance. However there has not been a certain way yet.

After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previous oriental medical doctor's views about freckle by refering to ten kinds of books including "Je-Bung-Won-Hu-Ron(諸病源候論)", it obtained some opinions which is about a synthetic views, and the difference in disease to discriminate about several different names, cause of disease, symptom and treatment. So it is report

* 東義大學校 外官科學 教室

I. 緒 論

雀斑은 바늘귀, 좁쌀알, 흰 쌀알 크기의 연한 밤색 또는 검은색 色素斑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 雀子斑, 面皰, 雀卵斑 이라고도 한다²⁾. 또한雀斑은 隋代의 《諸病源候論》에서는 “面皰黑” 이라고도 칭하였다³⁾.雀斑은 얼굴과 목, 손등 등에서 볼 수 있는데 형상은 芝麻와 같고 부스러진 돌형태로 흩어져 있으며 형태가 雀卵의 색과 유사하여 雀斑이라 이름붙여졌다⁴⁾.

雀斑은 色素異常性 皮膚病 가운데 一種인데, 色素異常性 皮膚病에는 雀斑, 黃褐斑, 鰐黑斑, 白癜風이 있다⁵⁾.

이러한雀斑은 洋方의 주근깨(Freckles, ephelides)에 해당한다⁶⁾. 주근깨는 기미(Melasma, Chloasma)와 마찬가지로 빛에 노출되는 部位에서 發生하나 점막에는 發生하지 않으며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 주근깨는 과색소침착으로 인한 피부병인데 과색소침착으로 인한 피부병에는 이외에도 기미, 흑자(lentigo), 염증 후 과색소 침착현상 등이 있다⁷⁾.

雀斑은 顔面部에 많이 발생하므로, 특히 女性의 경우에는 外見上의 문제로 여러 가지 方法을 찾아보고 이에 적절한 方法을 얻지 못할 때 來院하는 경우가 많다. 本 論文에서는 韓醫學的 文獻 考察을 통해雀斑의 原因, 症狀, 治療를 살펴보고 그 資料로서 臨床에 응용이 되고자 本 論文을 考察하였다.

2) 김동일 외, 『東醫學辭典』, 서울:여강출판사, 1989, p.687.

II. 研究資料 및 研究方法

1) 研究資料

《諸病源候論》外 10餘種의 參考文獻을 參照하였다.

2) 研究方法

① 歷代 醫書에서雀斑의 原因, 症狀, 治法 및 治方과 關聯된 原文을 찾아 本 論文의 本論에 모았다.

②雀斑의 原因, 症狀, 治法 및 治方과 關聯된 原文을 解釋하였고, 原文 解讀에 充實하고자 直譯하였다.

③ 原文을 直譯하여 이를 다시 原因, 症狀, 治法 및 治方 別로 區分하여 分類해 놓았고, 原文은 脚註로 만들어 本論 各 page 下端部에 실어, 本論 上端에 있는 解釋部分과 比較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④ 韓醫學에서 말하는雀斑이 現代醫學의 주근깨에 대해서 比較 檢討하였다.

⑤ 韓醫學에서雀斑의 原因, 症狀, 治法 및 治方과 洋方에서 주근깨의 原因, 症狀, 治法 및 治方을 相互 比較 檢討하였다.

3) 楊思樹 外, 『中醫臨床大全』, 北京: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1, p.924.

4) 南京中醫學院, 『諸病源候論校釋』,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3, pp.768~769.

5) 顧伯華 外, 『實用中醫外科學』,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pp.529~533.

6) 傅志宜, 『臨床皮膚病鑑別診斷學』, 北京: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p.180~186.

7) 안성구 外, 『흔히 보는 피부질환』, 서울:고려의학, 1993, pp.131~139.

⑥ 雀斑과 鑑別해야 할 몇가지 질환들을 比較 檢討하였다.

III. 本 論

가. 原 因

1. 《諸病源候論》⁸⁾

風邪가 皮膚에 침범하거나 痰飲이 臟腑를 침범해 생기는 것이다.

2. 《外科大成》⁹⁾

雀斑은 水가 부족해 火를 억제하지 못하여 火가 滯結하여 斑이 된 것이다.

3. 《外科正宗》¹⁰⁾

雀斑은 腎水가 (몸의)上部를 榮華롭게 하지 못하여 火가 滯結하여 斑이 된다.

4. 《中醫臨床大全》¹¹⁾

先天的인 腎水不足이나 陰虛火邪上炎이나 火滯해서 孫絡을 鬱阻해서 생기고, 햇빛으로 생긴 熱毒 역시 능히 色澤이 더 심해지게 한다. 이 외에도 일정한 유전 경향이 있다.

5. 《中醫外科臨床手冊》¹²⁾

腎水不足이나 虛火가 上部에 쌓이거나 孫絡血分에 鬱한 所致이다.

8) 巢元方, 「諸病源候論」, 台中:昭人出版社, 1988.

“此由風邪客于皮膚, 痰飲漬于腑臟, 故生奸黑”

6. 《鄉村中醫臨證大全》¹³⁾

腎水가 不足하거나 虛火가 上炎하여 얼굴에 滯結하여 發生한다.

7. 《實用中醫外科學》¹⁴⁾

先天的 腎水不足, 陰虛火邪上炎, 햇빛으로 인한 熱毒이 內에 쌓여 皮膚속에서 쌓인 때문이다.

나. 症 狀

1. 《諸病源候論》¹⁵⁾

9) 祁 坤, 「外科大成」, 台北:文光圖書有限公司, 1979, p.219.

“雀斑由水虧不能制火, 火滯結而成斑也”

10)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3, p.255.

“雀斑乃腎水不能榮華于上, 火滯結而爲斑, …”

11) 楊思樹 外, 「中醫臨牀大全」, 北京: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1, p.924.

“先天腎水不足, 陰虛火邪上炎, 火滯鬱阻孫絡而成, 日晒熱毒, 亦能促使色澤的加深. 此外, 有一定的遺傳傾向”

12) 顧伯康 外, 「中醫外科臨床手冊」,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p.400.

“由于腎水不足, 虛火上蘊, 鬱于孫絡血分所致”

13) 傅景華 外, 「鄉村中醫臨證大全」, 河南:中醫古籍出版社, 1988, p.417.

“腎水不足, 虛火上炎, 滯結面部”

14) 顧伯華 外, 「實用中醫外科學」,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p.529.

“先天腎水不足, 陰虛火邪上炎, 日晒熱毒內蘊, 鬱于皮內所致”

15) 巢元方, 「諸病源候論·面奸黑候」, 台中:昭人出版社, 1988.

“人面皮上, 或有如烏麻, 或如雀卵上之色是也”

사람의 얼굴 피부위에 혹은 烏麻와 같은 것이 있고 혹은 雀卵의 색과 같은 것이 이것이다.

2. 《中醫臨床大全》¹⁶⁾

雀斑은 얼굴과 목, 손등 등에서 볼 수 있는데 형상은 芝麻와 같고 부스러진 돌형태로 흩어져 있으며 형태가 雀卵의 색과 類似하여 이름붙여졌다.

3. 《中醫外科臨床手冊》¹⁷⁾

皮疹은 원형이나 타원형이고 마립이 크고 작은 棕褐色에서 淡黑色에 이르는 반점이 흩어져 융합되지 않는다.

4. 《皮膚病知識》¹⁸⁾

皮疹은 淡褐色, 深褐色이고 햇빛을 쬐면 淡黑色인데 頭가 녹두크기이고 원형 혹은 타원형이고 표면은 光滑하고 鱗屑이 없으며 경계는 淸楚한데

16) 楊思樹 外, 「中醫臨床大全」, 北京: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1, pp.923~924.

“雀斑是以在面部, 頸部和手背等處, 可見狀如芝麻大小, 散在如碎石形, 形似雀卵之色而定名”, “黧黑指面部的黑色斑點, 俗稱雀斑”

(1) 診斷要點

① 多發于青春期中少女, 亦有兒童期即開始發病. ② 面部散布碎石狀褐色斑點, 或密集, 或分散, 從不融合成片, 不痒, 不脫屑. ③ 夏日晒后顯著, 冬季避晒減輕. ④ 部分在頸部, 手臂, 手背, 上腿等處, 亦有類似皮疹.

(2) 鑒別診斷

雀斑狀痣: 皮損顏色深, 接近黑色, 且可發生身體的任何部位, 一般不受日光的影響.

斑點의 성글고 백백한 것은 같지 않고 단지 융합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많다.

5. 《鄉村中醫臨證大全》¹⁹⁾

17) 顧伯康 外, 「中醫外科臨床手冊」,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p.400.

(1) 多發生于青春期中以後的女性, 也有兒童期即開始發病的, 有遺傳傾向.

(2) 損害以顏面, 頸部, 手背爲多, 少數可累及前臂和小腿.

(3) 皮疹爲圓形, 橢圓形, 針頭到米粒大小的棕褐色到淡黑色的斑點, 散在而不融合. 夏季日晒后顯著, 冬季減輕.

18) 嚴規良, 「皮膚病知識」,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9, pp.113~114.

“雀斑是主要發生在面部等日晒部位皮膚上的黃褐色色素沉着斑, 青春期中更多, 夏季特別明顯”

“雀斑大多在5歲左右出現, 隨着年齡的增長而數目逐漸增多, 至青春期中更多, 它的發展與日晒有關, 所以色素斑點只限于暴露部位, 如面部, 頸, 手背或前臂, 夏季數日多, 色澤也加深, 而冬季則相反. 皮疹爲淡褐色, 深褐色或日晒呈淡黑色, 鉸頭至綠豆大, 圓形或橢圓形, 表面光滑無鱗屑, 邊界淸楚, 斑點疏密不一, 但不融合, 一般女性比男性多”

19) 傅景華 外, 「鄉村中醫臨證大全」, 河南:中醫古籍出版社, 1988, p.417.

“雀斑者, 面部若芝麻散在, 及雀卵之色而定名. 本病多發于青春期中少女, 如兒童期面見雀斑者, 多爲遺傳所致”

“初起即見褐色斑點, 散布于面部, 形如鉸頭, 或如米粒, 境界淸楚, 不凸出皮膚, 密集或散在, 從不融合成片, 即不紅腫, 亦不脫屑, 無任何自覺症狀. 夏日晒后顯著, 冬季避晒減輕. 雀斑雖多見于面部, 但頸部, 手臂手背, 小腿等

雀斑이라는 것은 얼굴에 芝麻와 같은 것이 흩어져있고, 雀斑의 색을 띄어 命名한 것이다. 초기에는 갈색반점이 나타나 얼굴에 흩어져있는데 모양이 皴頭와 같거나 혹은 米粒과 같고 경계가 분명하고 피부에 돌출되지 않고, 밀집되어 있거나 혹은 흩어져 있는데 융합되어 조각을 이루고 있지 않으며, 紅腫하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어떤 자각증상도 없다.

6. 《實用中醫外科學》²⁰⁾

갈색반점이 얼굴에 흩어져있는데 모양이 皴頭와 같고, 米粒과 같은데 圓形으로 된 것이 많고, 타원형으로 된 것도 많다. 경계가 분명하고 피부가 편평하고 紅腫하지 않으며 가루가 떨어지지도 않는다. 밀집하거나 혹은 흩어져 있는데 융합하여 조각을 만들지는 않는다. 여름에 빛을 쬐 후에는 현저하고, 겨울에 빛을 피하면 가벼워지며, 손바닥, 발바닥에는 이런 피부병이 나타나지 않는다. 어떠한 자각증상도 없다.

7. 《臨床皮膚病鑑別診斷學》²¹⁾

이 點狀의 色素斑은 淡褐色, 黃褐色, 褐色 혹은 淡黑色이 있는데, 鍼尖크기에서 米粒크기까지 나타나고 圓形 혹은 卵圓形이고 표면은 光滑하고, 鱗屑이 없으며 斑點은 疏密하나 하나는 아니다. 융합되어 큰 조각을 만들지 않으며 자각증상은 없다. 雀斑은

處亦可發生. 本病多見于皮膚較白的女性, 男的也有發生. 一般多自學齡前即可少數發生, 到青春發育期皮損明顯增多, 成年后多停止發展”

손바닥, 발바닥에는 발생하지 않으며 점막에도 생기지 않는다. 커다란 색소성 斑片이 없다.

다. 治法 · 治方

1. 《外科大成》²²⁾

20) 顧伯華 外, 「實用中醫外科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p.529.

(1) 臨床表現

“褐色斑點, 散布于面, 形如皴頭, 或如米粒, 多數圓形, 亦有橢圓. 境界清楚, 與皮平齊, 既不紅腫, 亦不脫屑. 密集或散在, 從不融合成片. 夏日晒后顯著, 冬季避晒減輕, 是本病的主要症狀. 雀斑雖多見于面部, 但頸部, 手臂, 手背, 小腿亦可發生. 甚至腰背, 胸脅亦可有零星分散的褐色斑點. 然手掌, 足底不會有此種皮損. 無任何自覺症狀. 本病多見于皮膚較白的女性, 男性也有發生. 一般多自學齡前即可少數發生, 到青春發育期皮損明顯增多, 或成年后多停止發展”

(2) 鑑別診斷

“雀斑狀痣: 皮損顏色深, 接近黑色. 可出現在身體的任何部位, 一般不受日光的影響. 早者一, 二歲即可出現, 晚者發育期后方纔產生”

21) 傅志宜, 「臨床皮膚病鑑別診斷學」,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p.180~186.

22) 祁 坤, 「外科大成」, 台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79, p.219.

“宜六味地黃丸服之. 用玉容散洗之. 久久可愈”

玉容散: 洗靨黑斑雀斑粉刺. 功能白面嫩肌.

白芷, 白朮, 白芨, 白茯苓, 白扁豆, 白細辛, 白殭蠶, 白蓮蕊, 白牽牛, 白薇, 白鴿糞, 甘松, 團粉, 加白丁香, 白附

六味地黃丸을 복용하고 玉容散을 사용하여 씻는다.

● 玉容散

黧黑斑,雀斑,粉刺 等の 질환에 씻는다. 얼굴을 희게하고, 피부를 부드럽게 하는 효능이 있다.

● 六味地黃丸

2. 《外科正宗》²³⁾

六味地黃丸으로써 근원을 滋養하고 外로는 玉容丸으로써 아침저녁으로 바르고 씻으면 점점 낫는다.

● 玉容丸

男婦雀斑, 酒刺 및 피부가 거친 경우에 씻어준다.

● 玉肌散

일체의 風濕, 雀斑, 酒刺, 白屑風, 피부에瘍이 생긴 경우에 효과가 있다.

● 六味地黃丸

3. 《中醫臨床大全》²⁴⁾

① 內治法

㉠ 火鬱證

치료는 散火解毒法을 사용하고, 처방으로는 犀角升麻湯에 綠豆衣, 紅花, 凌霄花 等を 加해 쓴다.

㉡ 水虧證

치료는 滋腎化源法을 사용하고, 처방으로는 六味地黃丸에 肉從蓉, 甘草, 升麻, 白附를 넣어 쓴다.

② 外治法

㉠ 病이 오래되지 않고, 색이 褐黑일 때는 天門冬을 써서 얼굴에 바르는데 매번 六斛四斗(一說에는 八斛,

子, 鷹條 等分 防風, 荊芥穗, 羌活, 獨活 減半共末. 罐收. 日洗三次. 一醋浸白朮擦之. 半月驗.

23)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3, p.255.

“當以六味地黃丸以滋化源,外以玉容丸早晚搽洗漸愈”

①玉容丸

玉容丸梔羌獨松, 荊芥辛奈芷麻風, 芫荽椒檀蠶槁本, 陀僧紅棗菊花逢.

治男婦雀斑, 酒刺, 及身體皮膚粗糙, 并用此洗.

甘松, 山柰, 細辛, 白芷, 白薇, 白芨, 防風, 荊芥, 姜蠶, 山梔, 藁本, 天麻, 羌活, 獨活, 陀僧, 桔礬, 檀香, 川椒, 菊花 各一錢, 紅棗肉 七枚, 以上共爲細末, 用去淨弦膜肥皂一斤, 同追作丸, 如秋冬加生蜜五錢, 如皮膚粗槁加牛骨髓三錢, 早晚洗之, 肌膚自然榮潔如玉, 溫潤細膩.

②玉肌散

玉肌散用生綠豆, 滑石白芷同成就, 碾末還兼白附子, 肺風酒刺真不謬.

一切風濕, 雀斑, 酒刺, 白屑風皮膚作瘍者并效.

菉豆半升, 滑石, 白芷, 白附子各二錢. 共爲細末, 每用三匙, 早晚洗面時湯調洗患上.

③六味地黃丸

24) 楊思樹 外, 「中醫臨床大全」, 北京: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1, p.924.

(1) 內治法

① 火鬱證

治宜散火解毒法. 方用犀角升麻湯加綠豆衣, 紅花, 凌霄花等.

② 水虧證

治宜滋腎化源法. 方用六味地黃丸加肉從蓉, 甘草, 升麻, 白附子.

(2) 外治法

① 病程不長, 色澤褐黑時, 選用天門冬水洗劑, 濕敷面部, 每次 5~10分鐘, 日 2次. 皮疹主要集中顏面區, 選用玉容散清水或蛋清調成糊狀外塗, 日1次.

② 偏方匯萃 :

또 一說에는 十斛의 5~10분정도를 하루 2차례 한다. 皮疹이 주로 顔面區에 집중했을 때는 玉容散清水나 蛋清으로 죽같이 하여 바르는데 하루 1차례 한다.

㉔ 桃花와 冬瓜仁을 각각 같은 양으로 부드럽게 갈아서 꿀을 넣어 죽같이 만들어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미가 난 부위에 바르고, 아침에 씻는다.

㉕ 녹두 적정한 양을 부드럽게 갈아 가루로 얼굴을 씻는데 하루 3차례 한다.

㉖ 白茯苓 적정한 양을 부드럽게 갈아 약간의 물을 넣어 患部에 바르는데 하루에 3차례한다.

㉗ 黑牽牛 적정한 양을 부드럽게 갈아서 죽같이 만들어 저녁에 患部에 칠하고 아침에 씻어낸다.

4. 《中醫外科臨床手冊》²⁵⁾

內治: 肝腎을 補한다.

首烏片이나 혹은 新六味片을 한번에 5片씩 매일 3차례 복용하고, 혹은

㉘ 桃花, 冬瓜仁各等分. 研細末, 蜜調成糊, 晚上臨睡塗上, 早上洗去.

㉙ 綠豆適量. 研細末, 取藥粉洗面, 日3次.

㉚ 白茯苓適量. 研細末, 取藥粉調入少許清水, 外搽患處, 日3次.

㉛ 黑牽牛適量. 研細末, 蛋清調成糊狀, 晚上外塗, 早上洗去.

(3) 預后判析 :

一般治療后, 色澤可能減淡, 但迄今無根治方法.

(4) 攝護措施 :

在夏天少晒太陽, 若外出應戴寬邊帽, 或撐傘. 面部不要塗擦吸光性化妝品.

知柏地黃丸을 한번에 4~5개 매일 2차례 복용한다 (吞服).

● 新六味片(經驗方)

生地 4000, 淮山藥 2000, 茯苓 1500, 女貞 2000, 赤芍 1500, 澤瀉 1500 將上藥共研細粉, 過100目篩, 加適量賦型劑, 軋片, 每片含生藥0.3.

功用: 六味地黃丸과 동일.

用法: 매일 2~3次하는데 매번 5片씩 따뜻한 물로 복용.

5. 《古代驗方大全》²⁶⁾

● 去面上雀斑兼美容方

組成: 陀僧, 白芷, 山柰, 鴿子糞 各等分

制法: 위의 약들을 아주 미세하게 가루내어 매일 저녁 꿀물을 섞어 바르면 6개월이면 효과가 나타난다.

出處: 普濟應驗良方

● 面上雀斑方

組成: 山柰, 鷹糞, 密陀僧, 蓖麻子 等分하여 가루로 만든다.

用法: 乳汁을 넣어 저녁에 바르고 아침에 씻는다.

出處: 普門醫品

● 雀斑方

組成: 哺胎鷄子 1枚

制法: 香油 250毫升을 끓여 哺胎鷄

25) 顧伯康 外, 「中醫外科臨床手冊」,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p.400.

“內治 補益肝腎. 首烏片(成藥)或新六味片, 每次5片, 每日3次;或知柏地黃丸, 每次4.5, 每日2次(吞服)”

26) 傅景華, 「古代驗方大全」,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0, pp.958~962.

子を 절개하여 炒焦하여 가루를 내어 기름에 넣은 다음, 米醋를 250毫升을 넣어 끓고루 섞는다.

用法: 거위 털을 사용해 바르는데, 3~5일이면 탈락한다.

出處: 經驗良方全集

● 牙皂散

組成: 猪牙皂角, 紫背浮萍, 白梅肉 各等分

用法: 위의 약들을 가루내어 매번 씻을 때 바르고 씻으면 그 斑이 저절로 떨어지는데 신기하다.

出處: 經驗廣集

● 玉容散

組成: 白殭蠶, 白附子, 白芷, 山柰 各 9g, 石膏 15g, 滑石 15g, 白丁香 3g, 冰片 0.9g, 硼砂 6g

功效: 雀斑을 없애고, 顔色을 윤택하게 한다.

用法: 함께 미세하게 가루내어 자기 전에 약간을 이용해 양 손바닥으로 얼굴을 비빈다.

出處: 經驗良方全集

● 松脂丸

組成: 松脂 500g, 白茯苓 250g

制法: 가루를 내어 꿀로 丸을 만드는데, 梧子크기로 한다.

用法: 매번 30丸씩 복용하는데, 白湯으로 삼킨다.

出處: 醫學入門

● 面生雀斑方

組成: 茯苓, 蜜

制法: 茯苓을 가루낸다.

用法: 꿀을 가루와 섞어 바르는데 7일이면 낫고, 피부가 회어진다.

出處: 訂補簡易備驗方

● 雀斑酒刺方

組成: 霜梅肉, 櫻桃肉(枝芽亦可), 猪牙皂角, 紫背浮萍 各30g

用法: 위의 약을 함께 찜어 丸을 만드려고, 이 丸으로 얼굴을 씻으면 효과가 있다.

出處: 訂補簡易備驗方

● 斑癩方

組成: 菟絲子苗

主治: 얼굴에 검은 점이 많아 雀斑과 비슷한 者.

用法: 生研汁이나 혹은 濃汁을 바르면 효과가 좋다.

出處: 良朋匯集

● 雀斑神效方

組成: 零陵香 6g, 皂角莢 60g, 殭蠶 9g, 地榆皮 6g, 桑白皮 6g, 紅棗 60g, 自死蟪虫 2條

主治: 男婦雀斑, 云頭酒刺粉刺等症

制法: 함께 丸을 만들어 매일 비빈다.

出處: 千金不易簡便良方

● 粉刺雀斑黑點神效方

組成: 白丁香(即麻雀糞) 3g, 山柰 6g, 甘松 6g, 白附子(竹節者佳) 6g, 密陀僧 3g, 杏仁 3g, 猪胰子 15g, 乾桂花 6g, 玫瑰屑 6g

主治: 粉刺, 雀斑, 黑點

制法: 다시 죽정이가 150g과 함께 찜어 녹두가루를 넣고 흰 꿀로 丸을 만

든다.

用法: 날마다 얼굴을 씻으면 신기한
효험이 있다.

出處: 經驗良方全集

◎ 雀斑黑痣野氣方

組成: 官粉 150g, 密陀僧 30g, 輕粉
7.5g, 麝香 1.5g, 白檀香 30g

主治: 婦人雀斑, 黑痣, 野氣.

用法: 함께 가루내어져녁에 달걀을
섞어 바르고 아침에 씻어 제거하는데,
오래 사용하면 얼굴빛이 옥과 같아진
다.

出處: 良朋匯集

◎ 玉容散

組成: 潮腦, 藿香, 陀僧, 茯苓 各30g,
白芷 15g, 胡粉, 花粉 各3g

用法: 위의 약을 함께 미세하게 가
루내어 매일 약간씩 잠자기 전에 물
을 타 얼굴위에 바르고, 다음날 씻어
제거하는데, 며칠후면 얼굴이 예뻐진
다.

出處: 厚德堂集驗方萃編

◎ 玉容粉

組成: 綠豆 1000g, 荷花瓣 60g(晒乾),
白滑石 15g, 香白芷 15g, 冰片 6g, 密陀
僧 6g, 白附子 15g

主治: 雀斑酒刺, 肺風槽鼻, 面上一切
斑點

用法: 함께 미세하게 가루내어 아침
저녁으로 세수할때, 10g을 사용해 얼
굴을 비빈다.

出處: 集驗良方

◎ 面生黑斑驗方

組成: 白殭蠶, 黑牽牛 各60g, 北細辛
60g

用法: 꿀로丸을 彈子크기로 만들
어, 하루에 여러차례 씻으면 한달후에
그 斑이 스스로 없어진다.

出處: 瘍醫大全

◎ 澡豆方

組成: 密陀僧(另研), 甘松, 杏仁(生
用), 白芷, 蛇床子 各 30g, 白果肉 40介,
蓖麻仁 49粒, 白蒺藜(杵去刺), 白牽牛
(酒浸) 各90g, 白殭蠶 60g, 皂角(去皮弦
子) 1500g

主治: 雀印或面生瘡癬, 疤痕色變赤
黑, 大效.

用法: 함께 가루내어 丸을 만드는
데, 아침저녁으로 얼굴을 비비고 씻는
다.

出處: 瘍醫大全

◎ 玉肌散

組成: 綠豆15g, 滑石, 白附子, 白芷
各9g

主治: 一切風濕雀斑, 酒刺, 白屑風,
皮膚作癢者并效.

用法: 함께 미세하게 가루내어 매번
10g을 사용하는데, 아침저녁으로 세수
할때 湯으로 해서 患部를 씻는다.

出處: 靈驗良方匯編

6. 《鄉村中醫臨證大全》²⁷⁾

27) 傅景華 外, 「鄉村中醫臨證大全」, 河
南:中醫古籍出版社, 1988, p.417.

“(1) 內治: 可用知柏地黃丸加浮萍, 赤
芍, 丹蔘, 白芷, 香附子水煎服.

(2) 外治

① 可用祛斑霜(白蠶丹藥底30克, 三仙丹

① 治法: 滋陰降火, 活血開鬱.

② 內治

知柏地黃丸 加 浮萍, 赤芍, 丹蔘, 白芷, 香附子 水煎服.

③ 外治

● 可用祛斑霜 (白靈丹藥底 30g, 三仙丹靈藥 10g, 共研極細末, 以雪花膏 300g 調如糊狀), 患處에 바르기를 매일 2~3次한다.

● 亦可搽玉容粉 (白芷, 白附子, 滑石 各15g, 蜜佗僧, 冰片 各6g, 荷花瓣 (晒) 60g, 綠豆粉 250g, 함께 미세하게 가루내어 아침저녁으로 얼굴을 씻고 바른다. 雀斑, 酒刺, 肺風, 얼굴에 난 모든 반점을 치료한다)

● 可試用時珍正容散 (猪牙皂, 浮萍, 白梅肉, 櫻桃枝 各30g, 鷹糞白 9g, 焙乾研末) 아침저녁으로 약간의 물을 섞어 얼굴에 바르고, 조금 시간이 지나 따뜻한 물로 씻어낸다.

7. <實用中醫外科學> 28)

① 內治

① 補益肝腎, 滋陰降火를 爲主로 한다. 生地, 玄蔘, 枸杞, 蘆根, 黃柏, 知母, 生甘草 等を 차로 해서 마신다.

靈藥10克, 共研極細末, 以雪花膏300克 調如糊狀), 搽患處, 每日2~3次.

② 亦可搽玉容粉(白芷, 白附子, 滑石各 15克, 蜜佗僧, 冰片各6克, 荷花瓣 (晒)60克, 綠豆粉250克, 共研細末, 早晚洗面搽之. 治雀斑, 酒刺, 肺風及面上一切斑點)

③ 可試用時珍正容散(猪牙皂, 浮萍, 白梅肉, 櫻桃枝各30克, 鷹糞白9克, 焙乾研末)早晚用少許水調搽面, 稍久以溫水洗去”

① 成藥驗方: 首烏片(成藥) 或 新六味片을 每次 5片씩 1日 3次 服用하거나 或은 知柏八味丸을 每次4.5g씩 1日 2次 服用한다.

② 護理

강렬한 日光을 직접 받는것을 피한다.

8. <현대적 병증 분류법에 의한 중의학 처방시술서> 29)

① 處方: 浙貝母, 白芨, 白附子

調製法: 위의 세가지 약을 가루내어 120目的 채로 쳐서 一葉關膏藥에 섞는다.

用法: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미부위에 바른다.

出典: 陝西中醫 1987. 2

② 處方: 熟地 18g, 山藥 20g, 茯苓, 澤瀉 各15g, 黃柏12g, 菊花12g, 牡丹皮, 山茱萸, 枸杞子, 陳皮 各9g

用法: 血虛患者는 製首烏 15g을 加하고, 血瘀患者는 鷄血藤 20g, 紅花

28) 顧伯華 外, 「實用中醫外科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p.529.

“不影響健康, 一般不需要治療”

(1) 內治

① 補益肝腎, 滋陰降火爲主, 可試用生地, 玄蔘, 枸杞, 蘆根, 黃柏, 知母, 生甘草泡茶飲.

② 成藥驗方: 首烏片(成藥)或新六味片, 每次5片, 1日3次; 或知柏八味丸, 每次 4.5克, 1日2次(吞服).

(2) 護理

“避免強烈日光直接照射”

29) 車龍日 外, 「현대적 병증 분류법에 의한 중의학 처방시술서」, 서울:법인문화사, 1993, pp.245~246.

12g을 加하고, 失眠患者는 夜交藤 30g, 合歡花 15g을 加한다. 매일 한첩 달여서 內服한다.

出典: 上海中醫藥雜誌 1987. 6

③ 處方: 生地 24g, 當歸 10g, 赤芍 10g, 川芎 6g, 桃仁 10g, 山茱萸 12g, 丹皮 9g, 茯苓9g, 澤瀉 9g, 山藥 12g, 紫草 15g, 柴胡 10g

用法: 말려서 가루내어 한번에 9g씩 하루에 세번 內服한다.

出典: 山西中醫雜誌 1984. 6

9. 《臨床皮膚病鑑別診斷學》³⁰⁾

電燒하는 등의 方法으로 治療할 수 있다.

IV. 考 察

雀斑은 얼굴피부위에 烏麻, 혹은 雀卵의 색과 같은 것이 발생하는 것이며³¹⁾, 《諸病源候論校釋》³²⁾ 에서는 烏麻를 黑脂麻로 보았다.雀斑은 色素異常性皮膚病 가운데 一種인데³³⁾, 이러한雀斑은 洋方의 주근깨(freckles, ephelides)에 해당한다. 주근깨는 과색소침착으로 인한 피부병의 하나이다³⁴⁾.

雀斑의 韓醫學의 原因을 살펴보면, 巢³⁵⁾는 “風邪客于皮膚, 痰飲漬于腑臟”라 하여 風邪와 痰飲을 原因으로 보았고, 祁 等³⁶⁾은 “水虧不能制火, 火滯結而成斑也.”, “腎水不能榮華于上, 火滯

結而爲斑”, “先天腎水不足, 陰虛火邪上炎, 火滯鬱阻孫絡而成….”, “腎水不足, 虛火上蘊, 鬱于孫絡血分所致”, “腎水不足, 虛火上炎, 滯結面部”, “先天腎水不足, 陰虛火邪上炎”이라 하여 腎水不足과 火滯結을 原因으로 보았다.

陳 等³⁷⁾은 “日晒熱毒, 亦能促使色澤의 加深. 此外, 有一定的遺傳傾向.”, “雀斑의 발생은 일종의 常染色體顯性的 유전성질병이라고 인식되는 것이 가능했는데 한 가문에서 수대에 걸쳐 연속적으로 같은 모양으로 같은 부위

31) 巢元方, 「諸病源候論」, 台中:昭人出版社, 1988.

32) 南京中醫學院, 「諸病源候論校釋」,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3, pp.768~769.

33) 顧伯華 外, 「實用中醫外科學」,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pp.529~533.

34) 안성구 外, 「흔히 보는 피부질환」, 서울:고려의학, 1993, pp.131~139.

35) 巢元方, 「諸病源候論」, 台中:昭人出版社, 1988

36) 祁 坤, 「外科大成」, 台北:文光圖書有限公司, 1979, p.219.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3, p.255.

楊思樹 外, 「中醫臨牀大全」, 北京: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1, p.924.

顧伯康 外, 「中醫外科臨床手冊」,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p.400.

傅景華 外, 「鄉村中醫臨證大全」, 河南:中醫古籍出版社, 1988, p.417.

顧伯華 外, 「實用中醫外科學」,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p.529.

37) 楊思樹 外, 「中醫臨牀大全」, 北京: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1, p.924.

嚴規良, 「皮膚病知識」,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9, pp.113~114.

顧伯華 外, 「實用中醫外科學」,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p.529.

30) 傅志宜, 「臨床皮膚病鑑別診斷學」, 北京: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p.180~186.

에 발생하는 서로 같은 모양의雀斑이 있었다.雀斑地域의 表皮내에 일종의 특수유형의 흑색소세포가 있어 遺傳的 영향을 받아 자외선의 作用下에서 흑색소의 속도가 非雀斑區의 속도에 비해 빠르다는 것을 지적한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흑색소세포의 수가 눈에는 비록 많지 않아 보여도 다만 활약이 커서 당연히 태양을 많이 쬐는 경우에 발전을 촉진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日晒熱毒內蘊, 鬱于皮內所致”라 하여 日晒熱毒과 遺傳을 原因으로 보았는데 洋方의 影響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다.

症狀에 대해 살펴보면, 巢³⁸⁾는 “사람의 얼굴 피부위에 흑은 烏麻와 같은 것이 있고 흑은 雀卵의 색과 같은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였고, 楊³⁹⁾은 “얼굴에 부수진 돌 형태의 갈색반점이 흩어져 있는데, ….”라고 하였다. 顧⁴⁰⁾는 “圓形이나 타원형이고 米粒이 棕褐色에서 淡黑色에 이르는 크고 작은 반점” 이라고 하였고, 嚴⁴¹⁾은 “淡褐色, 深褐色이고 햇빛을 쬐면 淡黑色인데 頭가 녹두크기이고 원형이나 타원형이고 표면은 光滑하고 경계가 분명하며 斑點의 성글고 뾰뾰한 것은 같지 않다” 고 하였다. 傅⁴²⁾는 “모양이 錢頭와 같거나 흑은 米粒과 같고 경계가 분명하고 피부가 돌출되지 않고, 紅腫하지 않다.” 라고 하였고, 顧⁴³⁾는 “모양이 錢頭와 같고, 米粒과 같은데 원형이나 타원형이 많고, 경계가 분명하고, 피부가 편평하고, 紅腫하지 않다”라고 하였다. 楊 等⁴⁴⁾은 斑點이 흑

은 밀집되어 있거나 흑은 나누어져 흩어져 있으며 융합되지 않고, 鱗屑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가려운 것과 같은 자각증상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發生部位로는 顔面(얼굴)에 많이 발생하지만, 부분적으로 頸(목), 手背(손등), 手臂(팔), 上腿(대퇴부), 小腿(종아리), 腰背(허리와 등), 胸脅(가슴과 옆구리), 肩(어깨) 등에도 생길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顧 等⁴⁰⁾은 손바닥과 발바닥에는 雀斑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 중에서 傅⁴²⁾는 雀斑은 점

39) 楊思樹 外, 「中醫臨牀大全」, 北京: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1, p.924.

40) 顧伯康 外, 「中醫外科臨床手冊」,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p.400.

41) 嚴規良, 「皮膚病知識」,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9, pp.113~114.

42) 傅景華 外, 「鄉村中醫臨證大全」, 河南:中醫古籍出版社, 1988, p.417.

43) 顧伯康 外, 「實用中醫外科學」,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p.529.

44) 楊思樹 外, 「中醫臨牀大全」, 北京: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1, p.924.

顧伯康 外, 「中醫外科臨床手冊」,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p.400.

嚴規良, 「皮膚病知識」,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9, pp.113~114.

傅景華 外, 「鄉村中醫臨證大全」, 河南:中醫古籍出版社, 1988, p.417.

顧伯康 外, 「實用中醫外科學」,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p.529.

傅志宜, 「臨床皮膚病鑑別診斷學」, 北京: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p.180~186.

45) 顧伯康 外, 「實用中醫外科學」,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p.529.

傅志宜, 「臨床皮膚病鑑別診斷學」, 北京: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p.180~186.

38) 巢元方, 「諸病源候論」, 台中:昭人出版社, 1988.

막에는 생기지 않는다 하였다. 또한 楊等⁴⁷⁾은雀斑이 남성보다 여성에게好發한다고 하였고, 여름에 햇빛을 쬐 후에 현저하고 겨울에 햇빛을 피하면 줄어든다고 하여日光과의 연관성을 밝혔다.

鑑別해서 診斷해야할 疾患으로雀斑 형태의 瘡가 있는데, 楊等⁴⁸⁾은雀斑 형태의 瘡가 피부의 손상된 부위의 안색이 심해져 흑색에 가깝고, 또 신체의 다른 부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日光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점이雀斑과 구별된다고 하였고, 顧⁴⁹⁾는 첨가하여 발생시기에 따라 감별을 언급하였는데, 청춘기 이후의少女에게 많이 발생하고 兒童期에 發病이 시작되는 경우는 유전의 영향이 많다는雀斑과 달리,雀斑狀瘡는 일찍 나타나는 경우에는 1, 2세에 나타날 수 있고, 늦게 나타날 경우에는 發育期 후에 생긴다고 하였다. 특히 傅⁵⁰⁾는雀斑이 6~7세후에 發疹이 시작하는 것이 많고(가장 빠른 경우에 3세에 나타난다), 青春期 전후에 皮疹이 심해진다고 해서 발생시기가 빠른雀斑 형태의 瘡와 구별하였고, 또한 발생부위에 따른 차이점을 언급하였는데,雀斑은 顔面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四肢나 軀幹에도 散發하지만, 皮疹이 散發하여도 얼굴의 皮疹이 爲主가 되고 다른 부위에는 小數의 散在皮疹이 있는 것이雀斑 형태의 瘡와 구별된다고 하였다.

治法, 治方에 대해 살펴보면, 祁⁵¹⁾는

玉容散과 六味地黃丸을 사용하였고, 陳⁵²⁾은 玉容丸과 玉肌散, 六味地黃丸을 사용하였고, 楊⁵³⁾은 火鬱證에 散火解毒法으로 犀角升麻湯 加 綠豆衣, 紅花, 凌霄花 등을 썼고, 水虧證에 滋腎化源法으로 六味地黃丸 加 肉從蓉, 甘草, 升麻, 白附子를 썼으며, 外治法으로 天門冬을 바르거나 玉容散을 清水나 蛋清으로 죽같이 하여 바른다고 하였다. 顧⁵⁴⁾는 內治로 肝腎을 補益하

46) 傅志宜, 「臨床皮膚病鑑別診斷學」, 北京: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p.180~186.

47) 楊思樹 外, 「中醫臨床大全」, 北京: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1, p.924.

顧伯康 外, 「中醫外科臨床手冊」,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p.400.

嚴規良, 「皮膚病知識」,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9, pp.113~114.

傅景華 外, 「鄉村中醫臨證大全」, 河南:中醫古籍出版社, 1988, p.417.

顧伯華 外, 「實用中醫外科學」,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p.529.

傅志宜, 「臨床皮膚病鑑別診斷學」, 北京: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p.180~186.

48) 楊思樹 外, 「中醫臨床大全」, 北京: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1, p.924.

顧伯華 外, 「實用中醫外科學」,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p.529.

49) 顧伯華 外, 「實用中醫外科學」,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p.529.

50) 傅志宜, 「臨床皮膚病鑑別診斷學」, 北京: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p.180~186.

51) 祁 坤, 「外科大成」, 台北:文光圖書有限公司, 1979, p.219.

52)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3, p.255.

53) 楊思樹 外, 「中醫臨床大全」, 北京: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1, p.924.

54) 顧伯康 外, 「中醫外科臨床手冊」,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p.400.

는 首烏片이나 新六味片, 知柏地黃丸을 사용하였고, 外治로 黃柏霜 등을 사용하였고, 顧⁵⁵⁾는 內治法으로 肝腎을 補하는 것과 滋陰降火를 언급하였고, 역시 首烏片과 新六味片, 知柏八味丸을 썼다는 점에서 顧⁵⁶⁾와 일치된다. 外治法도 동일하다. 傅⁵⁷⁾는 滋陰降火, 活血開鬱法을 썼는데, 內治法으로 知柏地黃丸에 浮萍, 赤芍, 丹蔘, 白芷, 香附子를 사용하였고, 外治法으로 祛斑霜, 玉容粉, 時珍正容散을 썼다. 內服藥과 外用藥 이외에도 여러가지 方法이 제시되었는데, 요약해보면 楊⁵⁸⁾은 여름에 햇빛을 적게 쬐고, 만약 외출할 때에는 당연히 챙있는 모자를 쓰거나 양산을 쓰고 얼굴에 빛을 흡수하는 화장품을 바르면 안 된다고 하였고, 嚴⁵⁹⁾은 日光을 피하고 외출할 때는 모자를 쓰고, 여름에는 避光劑, 防曬霜 등을 바르면 증상이 가벼워진다고 하였고, 빛을 피해 치료하는 法 등을 말하였다. 또, 嚴⁶⁰⁾은 치료할 때의 주의점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특히 조심해야 할 것으로 藥의 적당한 用量과 치료시간을 말하였는데, 용량이 부족하거나 시간이 지나치게 짧으면 雀斑을 제거하는 것이 완전하지 않고, 반대로 용량이 지나치거나 치료시간이 지나치게 길면 피부의 손상과피가 지나치게 되어 흉을 형성하게 된다고 해서 경험있는 의사가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楊 等⁶¹⁾은 根本的인 治療方法이 없다고 하였고, 顧⁶²⁾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치료가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하였지만, 특히 여성

에게 많은 雀斑은 여러가지 內的인 要因을 치료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으며, 美容上의 필요에 의해서라도 간과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雀斑은 洋方的으로 주근깨에 해당하는데, 주근깨는 기미와 마찬가지로 빛에 노출되는 부위에서 발생하나, 점막에는 발생하지 않으며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

洋方에서의 原因은 선천적으로 일광노출에 예민한 멜라닌 세포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며, 대개 5~6세경에 나타나며 빨간 머리의 사람, 금발머리 및 피부가 흰 사람에서 흔하게 발생한다.

症狀을 보면, 病變은 주위의 정상 피부보다 멜라닌 세포의 수가 1/3정도이지만 멜라닌 세포가 더욱 크며 더 많은 양의 멜라닌을 형성할 수 있고 기미처럼 여름에는 더욱 검어지고 겨울에는 색이 열리는 과정을 밟는다. 조직학적상 표피의 기저세포층에 멜

56) 顧伯康 外, 「中醫外科臨床手冊」,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p.400.

57) 傅景華 外, 「鄉村中醫臨證大全」, 河南:中醫古籍出版社, 1988, p.417.

58) 楊思樹 外, 「中醫臨牀大全」, 北京: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1, p.924.

59) 嚴規良, 「皮膚病知識」,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9, pp.113~114.

60) 嚴規良, 「皮膚病知識」,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9, pp.113~114.

61) 楊思樹 外, 「中醫臨牀大全」, 北京: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1, p.924.

傅志宜, 「臨床皮膚病鑑別診斷學」, 北京: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p.180~186.

62) 顧伯華 外, 「實用中醫外科學」,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p.529.

55) 顧伯華 外, 「實用中醫外科學」,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p.529.

라닌 색소의 양적 증가를 볼 수 있다. 주근깨의 주관적 증상은 없으며 객관적으로는 2~5mm의 크기로 열은 색에서부터 짙은 색의 반점이 불규칙하게 散在되어 얼굴, 어깨, 등 및 다른 노출 부위 등에 생기며 주근깨가 있는 피부와 노출이 안된 피부 사이에는 확실한 경계가 있는 것이 보통이다.

洋方에서의 과색소침착의 치료는 다음과 같다. 2~5%의 hydroquinone크림이나 로션(Artra, Eloquin, Forte, Melanex)을 수주에서 수개월간 1일 2~3회 도포한다. 하이드로퀴논은 멜라닌합성의 tyrosine-tyrosinase 과정을 한단계 또는 여러 단계를 억제한다. 이는 또한 멜라닌 색소의 형성, 멜라닌화 및 퇴화, 궁극적으로 멜라닌 세포의 괴사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색소 침착 부위는 주위의 정상 피부보다도 훨씬 빨리 완전하게 색이 바랜다. 1) 햇볕에 의해 병변이 더욱 검게 되는 일은 hydroquinone에 의해 표백이 되는 것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햇볕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햇볕차단제가 도움이 된다고는 하나 가시광선은 일부 색소를 더욱 검게 만들 수 있으므로 햇볕으로부터의 보호는 애매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2) 피부의 색소침착을 줄이는 더욱 효과적인 방법은 0.05% 혹은 0.1% tretinon과 20% hydroquinone을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과색소 침착부위에 1일 2회 도포하여 6주내에 색소침착이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5.0% hydroquinone, 0.1% tretinoin, 및 0.1% dexamethasone을 크림으로 만들어 사용하거나 하루씩 교대로 사용하는 방법

도 있다. 색소침착이 감소되는 것에 앞서 피부의 각질이 벗겨지고 홍반을 나타내게 된다. 광범위 SPF 15 혹은 더 큰 차단지수의 일광 차단제를 사용해야하고 칼라 메이크업의 결정은 일광차단제를 능가하는 것을 사용하도록한다. 3) 비타민 C와 glutathions 등을 전신적으로 대량 투여한다. glutathione은 멜라닌 색소 형성 과정에서 아미노산인 Tyrosine이 Tyrosinase 효소의 작용을 억제시켜 필요이상의 멜라닌형성을 억제해서 색소질환에 효과가 있다⁶³⁾.

V. 結 論

以上 文獻的 考察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雀斑은 피부 특히 얼굴에 많이 발생하는 색소침착성 피부병인데, 雀斑, 面皰, 雀斑, 面皰黑이라고도 한다.

2. 原因은 첫째로, 風邪가 피부에 침범하여 斑이 된 것과 둘째로, 痰飲이 臟腑에 있어 斑이 된다고도 하고, 셋째로, 水가 모자라 火를 억제하지 못하여 火가 滯結하여 된다고도 하고, 넷째로, 先天的인 腎水不足이나 陰虛 火邪上炎이나 火滯해서 孫絡을 鬱阻해서 된다고도 하며, 다섯째로는 햇빛을 쬐어 熱毒으로 생긴다고 보기도

63) 안성구 外, 「흔히 보는 피부질환」, 서울:고려의학, 1993, pp.131~137.

한다.

3. 症狀는 사람의 얼굴 피부위에 혹은 烏麻와 같은 것이 있고 혹은 雀卵의 색과 같은 斑點인데, 혹은 밀집되어 있거나 혹은 나누어져 흩어져 있으며 융합되지 않고 조각을 이루는데 皮疹은 모양이 鍼頭와 같거나 혹은 米粒과 같고, 원형이나 타원형이고, 경계가 분명하고, 피부에 돌출되지 않고, 紅腫하지 않고, 가렵지 않고, 가루가 나지도 않는다. 얼굴에 가장 많이 생기고, 부분적으로 頸(목)이나 手背(손등), 肩(어깨), 手臂(팔), 上腿(허벅지), 小腿(종아리), 腰背(허리와 등) 등의 四肢, 軀幹에도 나타나는데 손바닥이나 발바닥에는 생기지 않는다.

4. 治療는 散火解毒, 滋腎化源, 補益肝腎, 滋陰降火, 活血開鬱 등의 治法을 쓰는데, 크게 內治法과 外治法이 있다. 內服으로는 六味地黃丸, 犀角升麻湯, 新六味片, 知柏地黃丸 등을 應用하고, 外用으로는 玉容散, 玉肌散, 黃柏霜, 祛斑霜 등을 여러가지 制法으로 얼굴에 바르거나 비비고 씻는다. 아울러 햇빛을 피하는 것이 강조되어 진다.

5. 雀斑과 鑑別해서 診斷해야할 疾患으로는 雀斑형태의 痣가 있다. 雀斑형태의 痣는 日光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발생시기에 있어서도 일찍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雀斑과 구별된다고 하였고, 발생부위에 있어서는 雀斑은 頸, 肩, 手背 등의 노출부위에 도 생기고 심지어는 四肢나 軀幹에도

散發하지만, 皮疹이 散發하여도 얼굴의 皮疹이 爲主가 되고 다른 부위에 는 小數의 散在皮疹이 있는 것이 雀斑형태의 痣와 구별된다고 하였다.

參考文獻

1. 顧伯康 外：中醫外科臨床手冊，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2. 顧伯華 外：實用中醫外科學，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85。
3. 祁 坤：外科大成，文光圖書有限公司，1979。
4. 김동일 外：東醫學辭典，서울，여강출판사，1989。
5. 南京中醫學院：諸病源候論校釋，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3。
6. 傅景華 外：鄉村中醫臨證大全，河南，中醫古籍出版社，1988。
7. 傅景華：古代驗方大全，北京，中醫古籍出版社，1990。
8. 傅志宜：臨床皮膚病鑑別診斷學，北京，中國醫藥科技出版社，1990。
9. 巢元方：諸病源候論，台中，昭人出版社，1988。
10. 안성구 外：흔히 보는 피부질환，서울，고려의학，1993。
11. 楊思樹 外：中醫臨床大全，北京，北京科學技術出版社，1991。
12. 嚴規良：皮膚病知識，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79。
13. 陳實功：外科正宗，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3。
14. 車龍日 外：현대적 병증 분류법에 의한 중의학 처방시술서，서울，법인문화사，1993。